

# ‘한중 관계 최고 전문가’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한중 교류의 가장 튼튼한 다리를 놓겠다!

권기식(權起植, 추밀공파 34世) 한중도시우호협회 회장(대중회 부회장)은 현재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이다. 중국의 3대 매체인 당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와 국영 중국중앙텔레비전(CCTV) 및 관영 신화통신(新華通社)과 단독 인터뷰를 한 유일한 한국인이다. 또한 중국을 대표하는 북경대학(北京大學)과 청화대학(清華大學)에서 방문학자를 지낸 유일한 한국인이다.



권기식회장이 중국 중앙텔레비전에 출연해 중국공산당 제20차 전국대표대회 축하인사를 하고 있다.

권 회장이 일약 중국 언론의 스타로 떠오르다보니 제20차 전국대표대회와 관련한 인터뷰 내용을 집중 보도했으며, 동방(東方)TV 특집 대담방송에 출연하는 일도 벌어졌다. 지난 10월 20일에는 상하이미디어그룹 초청으로 제20차 당대회와 관련하여 세계적인 중국 전문가로 알려진 청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과 대담을 하기도 했다. 이처럼 권회장이 한중 공공교류 분야에서 단연 최고의 위상과 권위를 가지는 해외 인사로 자리매김하자 급기야 남방도시보(南方都市報)와 한글판 흑룡강신문 등 지방언론들까지도 왔다튀 그를 인터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외교부는 7월 30일 외교부 위촉(웨이신微信) 공식 계정에 권기식 한중우호협회장의 인민일보 인터뷰를 게재했다. 지금까지 유례가 없는 일이자 외교적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에 대해 중국 동

북망(12.13)과 흑룡강신문(12.27 국제면)은 “지금까지 한국인이 이렇게 중국 언론의 각광을 받은 적이 드물다. 신문과 잡지는 물론 TV 뉴스와 시사대담까지 거의 모든 중국 매체를 아우르고 있다. 심지어 인민일보 인터넷판인 인민망은 지난 11월 19일 권 회장을 최고의 중한 관계 전문가로 극찬했다”고 보도했다. 권 회장 또한 중국외교부, 학계, 지방정부 등의 주요 인사



들과 광범위하게 교류도 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 주목경 한국특파원들 사이에서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의 중국 언론 노출 빈도가 주중 한국대사를 앞지른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이다.

역사적으로 한국인이 중국에서 이름을 떨친 경우는 당나라 때 당나라 과거에 급제하고 황소의 난 때 투황소격문(討黃巢檄文)을 썼던 최치원(崔致遠, 857~미상)과 조선 초기 정도전(鄭道傳, 1342~1398)의 표전문 사건이 발생하자 목숨을 걸고 자진해서 명나라에 들어가 표전문 사건을 외교적으로 해결했던 양촌(陽村) 권근(權近, 1352~1409)이 있다. 이때 명나라는 표전문의 작성자로 정도전을 지목하고 정도전의 입국을 요구했으나 조선에서는 정도전을 보내지 않아 하마터면 국가 간의 침대한 갈등으로 번질뻔한 사건이었는데 양촌 권근이 명대조인 주원장을 만나 황제가 던지는 운(韻)에 맞춰 시(詩)를 지어 바치자 주원장이 그 탁월한 실력에 감탄하여 어제시(御製詩)까지 지어주며 당대의 유학자 유삼오 등과도 교류를 허락한다.

인민일보와 중국중앙텔레비전 및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의 3대 매체와 21세기 과학 통신 기술의 발달로 인한 위촉 등으로 인해 중국에서의 권기식 회장의 유명세는 최치원이나 양촌 권근에 비하면 그 파급력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뒤지지 않는다

고 볼 수 있다. 권기식 회장이 과연 누구이기에 이처럼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인이 되었으며, 또 중국정부와 언론으로부터 한중관계 최고전문가라는 극찬까지 받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권기식 회장은 양촌 권근의 후손이다. 고향은 양촌 권근의 삼대묘소가 자리한 충북 음성이다. 10살 때 부모님을 따라 대구로 이주해 2년여 간 학업을 중단할 정도로 가난에 허덕이다 생존의 절박함에 부대껴 고 어린나이에 넘마주이를 체험하기도 한다. 20대 초반에는 경북대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졸업 후 인천일보를 거쳐 한겨레신문으로 간 그는 의정부 범조비리 사건을 특종 보도하는 등 민원기자로 이름을 날리다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의 발탁으로 청와대에 들어가 장성현 현 윤석열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함께 국정상황실을 만들고 정치정보를 총괄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호형호제하는 인연으로 2002년 대선에서 요직인 후보 비서실 비서장으로 활약한다. 그리고 2004년 총선에 출마했으나, 아깝게 낙선의 고배를 마시고 다시 언론과 학계로 돌아온다. 이후 영남매일신문 회장과 국민일보 쿠파미디어 부사장을 역임하는 등 10여 년 언론계에서 일한다. 또한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와 일본 외무성 초청 시즈오카현립대 초청연구원, 미국 미시간주립대 국제지도사 과정 수료, 중국 외교부 초청 청화대 방문학자로 활동한다.

이처럼 그는 권력 핵심부와 언론·학계를 두루 거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으나, 낙선 후 별다른 일 없이 평범하게 언론과 학계에 머물 듯 보였다. 그러나 2016년 6월 느닷없이 한중 지방정부 간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외교부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 한중도시우호협회를 설립 하더니 한중관계의 전도사가 되겠다고 선언한다. 마침 한국은 사드 배치 문제로 새 우 시끄러울 때였다. 그리고 그는 단호하게 사드 반대운동의 전면에 나선다. 당시만 해도 권 회장은 중국에 크게 알려진 인사가 아니었다. 그저 하나의 한중 단체의 대표일 뿐이었다. 그러던 그가 2017년 11월 중국 외교부의 초청으로 청화대 방문학자로 북경에 다녀온 뒤 중국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2018년에는 드디어 중국국제제우호연락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중 민간 고위급 전략대화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한국의 예비역 장성과 국영원 전직 국장 등을 중국 인민해방군 장군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작년 11월 12일에는 상하이 한중일 환경포럼에 초청돼 한국 대표로 기조연설을 한 것이나, 2021년 10월 대구에서 개최된 한중 우호 도시포럼에는 산서성 랑푸안(藍佛安) 성장이 직접 참여해 연설한 것이나 인민망이 그를 최고의 한중 관계 전문가로 보도한 것은 그의 중국 내 입지와 위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중국정부 기관과 언론은 권 회장을 한중 교류 최고 전문가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 증표는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상하이밍(那海明) 주한 중국대사로부터 받은 감사패를 보면 알 수 있다. 이에 권기식 회장은 “한중 우호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한중 교류, 특히 청소년 교류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는 평소 ‘한중 교류의 가장 튼튼한 다리를 놓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제가 놓은 한중 교류의 다리를 건너 비즈니스도 하고 공부도 하고 친구도 만들어 한중 우호가 자존만에 이어지게 하는 것이 저의 꿈입니다.”라고 그가 얼마나 투철한 사명감과 치밀한 전략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권 회장은 그의 꿈을 위해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와 외교부 등 중앙 기관들은 물론 산서(陝西)성과 절강(浙江)성 등 지방정부의 고위 인사들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며 한발 한발 나아가고 있다. 중국의 고위급 인사들은 물론 석학들과도 교분을 쌓았고,



쑤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과 한중교류 대화를 나눈 뒤 기념촬영

이우시 인민정부 해외자문위원으로 위촉되기도 했다.

그러나 한중수교가 30주년을 맞았으나 한중관계는 예전 같지 않은 실정이다. 한중 교류의 가장 튼튼한 다리를 놓겠다고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권기식 회장이 한중 교류와 관련하여 인터뷰를 진행했다.

### -현재의 한중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다. 공자가 논어에서 삼십이립(三十而立)이라고 했듯이 사람도 30살이 되면 성년인데 한중 관계는 아직 성년의 성숙한 관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본다.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문제를 수년째 끄는 것도 그렇고, 양국 국민감정이 갈수록 나빠지는 것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도 외교역량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여기에 이세기 전 장관과 같은 막후 대화를 이끌 친중 인물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작은 불씨 하나라도 온 산에 불길기 옮겨 붙을 수 있는 ‘신뢰 부재의 상태’가 지금의 한중 관계이다.

### -양국 관계의 해법은 뭐라고 보나?

지난 1992년 수교 이후 한중 관계는 그 어느 국가간 관계보다 좋았다. 지난 30년간 양국 교역액은 48배나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 한해 인적 교류는 1천 만명에 이르렀다. 가히 폭발적 성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이고, 세계 다른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관계였다. 서울에는 대립등과 건대입구에 차이나타운이 있어 청년들이 양꼬치에 칭다오 맥주를 즐겨 마셨다. 북경 한인타운인 왕징의 한식당에서는 중국 청년들이 불고기에 소주를 마셨다. 그런 한중 관계가 지금은 서먹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이는 근본적으로 상호 존중의 원칙이 무너진 데 원인이 있다고 본다. 양국이 상호 핵심이익을 존중하고 정치외교적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기본이다. 한중은 수천 년의 교류 역사를 갖고 있고 공동 문명권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강한 복원력이 있다. ‘신뢰 회복’이 이뤄지면 금방 좋은 관계로 돌아갈 것으로 본다.

### -한중 공공교류의 최고 권위자로서 공공 교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었으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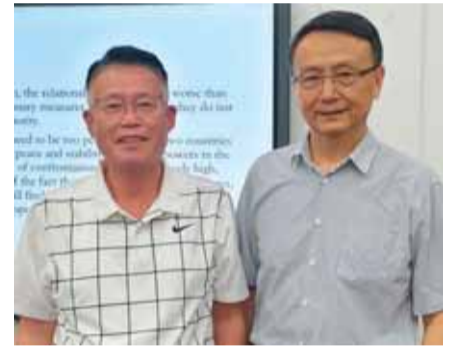
흔히 국가간 관계 즉 외교 관계를 1.0 트랙이라고 한다. 이 관계는 핵심이 국가 이익이다. 따라서 늘 충돌의 요인이 있고 갈등할 수 있는 관계이다. 이에 반해 지방정부 교류라든가 공공 분야의 교류를 1.5 트랙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갈등 요인이 없다. 또한 정부간 관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국가간 관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즉 외교의 실패를 보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중도시우호협회는 지난 2018년부터 중국국제제우호연락회와 함께 한중 공공 고위급 대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습근평 중국 국가주석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1.5 트랙 교류 강화에 대해 강조한 것도 이같은 맥락이라고 본다.

###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포부가 있다면?

한중의 미래세대를 위한 교류 플랫폼을 만들어 그들을 위해 튼튼한 다리가 되고 싶다. 또한 한중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경제 교류의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추진할 생각이다. 지금까지 30년간의 한중 교류에서 중심은 경제 교류였다. 앞으로 30년도 경제 교류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양국이 함께 번영하고 성공



11월 3일 저장성 인민대회당에서 루산(盧山) 부성장과 면담 후 기념사진을 찍은 권 회장



중국의 석학 자징위(賈經緯) 북경대 국제관계학원 교수와 대화 후 기념촬영. 자징위 교수는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 그레이엄 앨리슨 석좌교수와 쌍벽을 이루는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관계 분야 석학으로 명망이 높은 학자이다. 지난 2008년부터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상무위원을 맡기도 했다.



왕웨이 이우시 부시장(오른쪽)이 28일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에게 해외 자문위원 위촉장을 전달하고 있다.

하는 길이다. 또한 지방정부 교류를 중심으로 한 한중 1.5 트랙 교류에 협회의 힘을 집중할 생각이다.

권기식 회장은 인터뷰 말미에 이 모든 것이 늘 우리 아들 이름 석자 날리게 해 주세요 하며 부처님 앞에 기도하던 나의 어머니 신효근. 꿈에도 그리운 나의 어머니 신효근. 이름을 날리되 출세를 바라지 않았던 무학(無學)의 나의 어머니 덕분이라고 거듭 말했다.

권기식 회장은 국가적으로 한중관계의 소중한 자선이자 안동권문의 자랑이다. 권기식 회장이 위기에 빠진 한중관계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은 한중관계의 커다란 행운이다. 넘마주이를 할 만큼 어려운 가정형편을 극복하고 권력의 핵심부와 언론과 학계 등을 두루 망라한 다채로운 경륜을 바탕으로 세찬 바다 물결을 헤치고 구만리 장천을 날아오르는 대봉(大鵬)처럼 봉정만리(鵬程萬里)의 대장정을 펼쳐고 있는 권기식 회장의 꿈, 한중 교류의 가장 튼튼한 다리가 놓여지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권행완 편집국장



대학 졸업식날 어머니와 함께

인류사에는 정사와 야사와 가족사가 있습니다  
가족사는 족보이고 한국은 족보의 첨단선진국입니다

한글과 인터넷판을 겸한

## 안동권씨 동정공파보가 나왔습니다

동정공파는 안동권씨 10세 15대파 중 제5파 휘 체달을 파조로 전국과 해외에 산거하는 2만8천여 후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안동권씨동정공파보는 역대로

세칭 동파와 서파로 양자가 갈라져 발간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양자가 단일화로 통합되어, 각기 여러 권으로 나오던 것이 거편의 초호화판 단일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최첨단출판인쇄제책기술 4x6배판 최고급용지자재 사용  
부록합책 1,626면 값 150,000원

동정공파보구입신청

<36709> 경북 안동시 육사로 333 펠리시아 101동 303호 권영화 010-7288-2510

e-mail 개미골 kwongemigol@hanmail.net

동정공파카페 https://cafe.daum.net/andongkwondj

서울구입처 안동권씨종보사 02) 723-4480, 010-6491-3329

안동권씨동정공파보편찬위원장 총회장 권오수